

2024 년 새해특별새벽기도회
(1/2/2024, 화)
일곱 교회에 보내신 편지: 에베소 교회(1)

찬양: 86(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성령님의 조명을 위한 기도: 다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고 묵상할 때 주시는 성령님의 조명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말씀 읽기: 요한계시록 2:1

말씀에 대한 이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로마의 제 10 대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의 통치에 말기(A.D. 81-96)에 일어난 박해로 말미암아 밧모 섬에 유배되었을 때(A.D. 95-96)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계시를 기록한 것으로, 마지막 때에 교회가 당할 환난과 승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통한 이 땅의 역사의 종결 그리고 구속사의 완성의 과정을 담았다.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때에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종말 사건들의 전개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 계 1:19 에는 그 사건들을 “**장차 될 일**”이라고 표현하였는데, 그 일들의 구체적인 모습들은 계 4:1-22:5 에 기록되어 있다. 요한은 “**장차 될 일**”들의 기록에 앞서 2-3 장에서 자신의 서신의 수신자들인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록하였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들은 역사 속에 실제로 존재했었고, 요한 자신은 유대 전쟁 때(A.D. 66-70) 에베소로 이동하여 그곳을 중심으로 30년간 사역했다. 본문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그 교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존재했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본문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구절은 본문 말씀이 그 당시의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만이 아니라, 역사 속에 그리고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모든 주의 몸 된 교회를 향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임을 드러낸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향한 말씀에는 그들을 향한 칭찬과 함께 책망의 말씀도 들어 있다. 흥미로운 것은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들은 교회도 있지만, 책망은 없이 칭찬만 들은 교회들도 있다(칭찬만 들은 교회 -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들을 향한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은 그들의 영적 상황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우리의 우리의 모습도 반성하게 하고, 우리가 원하고 추구해야 하는 교회와 성도 각자의 신앙적인 모습도 발견하게 한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본문을 통해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깨달으며 삶 속에서 실천하자.

말씀 속에 담아 주신 메시지: 1)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엠 2:1 -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 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 구절은 요한에게 직접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들을 의미하고(계 1:20), 일곱 금 촛대는 일곱 교회들을 의미한다(계 1:20).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 교회들의 머리가 되시고 그 교회들을 완전히 통치하고 계심을 나타낸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며,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

엠 1:20-23 - 20.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 편에 앉히사 21.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 때,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교회의 가장 주된 목적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믿고 아는 교회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를 추구하고, 사람이 앞서지 않고 주님을 앞세우는 교회가 되기 위해 힘쓴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는 교회의 본질에 어긋날 때 교회는 어려움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 되는 교회,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고 사람만 모여 있는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 예수님의 비전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꿈과 세속적 욕망을 따라가는 교회 역시 참된 교회가 아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막 10 장에서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디”(35 절)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36 절)라고 하시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37 절)라고 말하였다. 그 때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38 절)라고 하셨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과 세례는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등에 업고 세상적인 높은 자리에 앉아 부귀와 영화를 얻으려고 했다. 예수님과 그들은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았고, 다른 목적을 추구하고 있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같은 공동체에서 함께 먹고 자며 삶을 나누었지만, 서로 다른 곳을 바라 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문제였다.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 역시 이와 같은 문제들을 가질 수 있음을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교회들과 교회의 사자들의 진정한 통치자와 주관자가 되심을 믿고 알 때, 교회와 성도들의 존재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실천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우리 교회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나 자신의 삶은 무엇을 위한 삶, 어디로 향하는 삶인지를 늘 깊이 생각하며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어야 한다.

교회의 머리되시며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 움직이며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이다. 교회는 말씀 위에 서 있고 말씀을 추구하는 공동체이다. **엡 2:20 -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의 터”는 신약의 말씀으로 볼 수 있고, “선지자들의 터”는 구약의 말씀으로 볼 수 있다. 교회는 주님의 말씀 위에 서 있고, 말씀에 이끌리며, 말씀을 따라가는 공동체이다. 예수님은 요한을 통하여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올 한 해는 어느 때 보다도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자. 말씀을 더욱 사모하자. 말씀을 더욱 묵상하자.

올 한 해 교회의 머리 되시며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묵상하기: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주신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함께 나눌 기도제목

1.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잘 섬기며,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2.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올려 드리는 칭찬들은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3.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시옵소서(시 19:14).